

## 一部 自殺企圖者에 대한 社會精神醫學的 調查研究

高麗大學校 醫科大學 豫防醫學教室 및 環境醫學研究所

宋 海 龍・廉 容 泰

高麗大學校 醫科大學 神經精神科學教室

申 東 均

### 序 論

자살의 定義는 W.H.O.에 의하면 “致命的인 結果를 招來하는 自害行爲”라고 하였으며 自害行爲란 “어느 정도의 自殺意圖를 가지고 그 動機를 認知하면서 自己 自身에게 加한 傷害”라고 하였다<sup>2)</sup>.

Weiss<sup>1)</sup>는 자살의 三大 原因論의 因子로서 자살에 대한 소속집단의 社會文化적태도, 개인이 직면하는 外적 상황, 그리고 이런 집단 및 상황과 개인성격간의 相互作用을 들고 이 중 마지막 개인의 성격이 가장 중요하며, 瓦解된 성격의 사람은 누구나 마주치게 되는 위험한 環境적 상황이나 環境에 대해서 자신의 生命을 거는 反應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Los Angeles 자살에방센타의 경우 年間 약 10,000명의 自殺企圖者中 1,000명 이상이 자살로 죽어 自殺企圖者의 8~10%가 自殺遂行으로 죽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up>2)</sup>. 한국에서도 「서울시 경찰국」에 의해 수집된 1965년도 자살자 총수는 7,432명으로 인구 10만에 대하여 28.6의 비율을 보여 주었고<sup>19)</sup> 강화도지역에서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년간의 자살자 총수는 127명으로 인구 10만에 대하여 연평균 자살율은 44.6명 이었다<sup>1)</sup> 이러한 숫자를 볼 때, 自殺未遂에 그친 自殺企圖者

의 숫자는 매우 많으리라 생각된다.

자살기도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농촌지역 중심의 연구는 이성훈・이만홍(1982)<sup>2)</sup> 유순형・김일순(1981)<sup>1)</sup>의 강원, 강화지역 외에는 별로 없었다. 농촌사회에서 自殺手段의 대부분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농약이며 자살행위가 오랫동안 계획된 것이 아니라 偶發的・即興的으로 誘發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本研究는 自殺企圖者의 社會環境적 배경과 정신의학적 측면 그리고 多面的 人性檢査(MMPI)를 실시하여 自殺企圖者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特性을 알아 봄으로써 自殺企圖를 事前 豫防할 수 있는 對策을 마련하여 농촌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發展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試圖하였다.

### 調查對象 및 方法

1981年 2月부터 1984年 2月까지 3年間 경상북도 선산군과 청도군에서 藥物中毒를 利用한 自殺企圖者 中 企圖後 실패한 93명에서 면담이 가능한 45명을 대상으로 하여 1984年 2月부터 3월까지 2개월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對象者에게 보다 쉽게 接近하기 위하여 對象者와 人間的인紐帶關係가 있는 該當地域의 보건지소장, 보건요원,

보지진료원들에 의한 개별면담방법을 취하였다.

개별면담은 설문내용과 MMPI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교육시킨 후에 실시하였다. MMPI는 383 문항을 사용했으며 MMPI를 실시할 때 檢査者가 被檢査者 곁에 있게하여 이해가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시킨 다음 답하게 했다. 그리고 답하는 과정에서 檢査者의 見解가 被檢査者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注意시켰다.

### 調 査 結 果

#### 1) 性別 및 年齡分布

本 調 査의 對 象이 된 自 殺 未 遂 者 93 名의 年 齡 分 포는 最 少 15 歲 부 터 最 高 80 歲 까 지 이 며 20 代 에 서 27 名 ( 29% ) 으 로 가 장 많 았 고 그 다 음 이 40 代 로 22 名 ( 23.7% ) 이 었 고 60 代 가 가 장 적 었 다. 性 比는 138.5 로 남 자 가 높 았 다 ( Table 1 ).

면 접 조 사의 對 象 이 된 45 名의 年 齡 分 포는 15 歲 부 터 59 歲 까 지 로 50 代 에 서 13 名 ( 28.9% ) 으 로 가 장 많 았 고 그 다 음 이 40 代 로 11 名 ( 24.4% ) 이 었 다 ( Table 2 ).

#### 2) 學歷, 職業, 宗教別分布 및 結婚關係

학 력 은 국 졸 이 25 名 ( 55.6% ) 으 로 가 장 많 았 고, 중 졸 이 10 名 ( 22.2% ), 고 졸 이 6 名 ( 13.3% ) 의 순 으 로 높 았 으 며 무 학 이 4 名 으 로 가 장 적 었 다.

직 업 別 分 포는 農 業 이 28 名 ( 62.2% ) 으 로 가 장 많 고 그 다 음 이 회 사 원 으 로 7 名 ( 15.6% ) 이 었 다 ( Table 3 ).

종 교 別 分 포는 無 教 가 25 名 ( 55.6% ) 으 로 가 장 많 고 불 교 가 13 名 ( 28.9% ), 기 독 교 가 5 名 ( 11.1% ), 천 주 교 가 1 名 ( 2.2% ), 기 타 가 1 名 이 었 다. 결 혼 관 계 는 기 혼 이 32 名 ( 71.1% ) 으 로 가 장 많 았 고 동 처 가 2 名 ( 4.4% ), 미 혼 이 11 名 ( 24.4% ) 이 었 다.

#### 3) 季節 및 飲毒場所

자 살 을 기 도 한 계 절 은 여 름 이 15 名 ( 33.3% ) 으 로 제 일 많 고 그 외 에 는 봄 이 10 名 ( 22.2% ) 가 을 이 10 名, 겨 울 이 10 名 으 로 차 이 가 없 었 다.

음 독 장 소 는 44 名 이 자 택 이 며 단 1 名 만 이 도 로

Table 1. Age and sex distribution of the total numbers suicide attempted

Age	Sex		Total(%)
	Male (%)	Female (%)	
10 - 19	3 ( 3.2 )	4 ( 3.2 )	6 ( 6.5 )
20 - 29	14 ( 15.1 )	13 ( 14.0 )	27 ( 29.0 )
30 - 39	6 ( 6.5 )	9 ( 9.7 )	15 ( 16.1 )
40 - 49	17 ( 18.3 )	5 ( 5.4 )	22 ( 23.7 )
50 - 59	11 ( 11.8 )	7 ( 7.5 )	18 ( 19.4 )
60 -	3 ( 3.2 )	2 ( 2.2 )	4 ( 4.3 )
Total	54 ( 58.1 )	39 ( 41.9 )	93 ( 100.0 )

Table 2. Age and Sex distribution of the samples interviewed among attempters

Age	Sex		Total(%)
	Male (%)	Female (%)	
10 - 19	1 ( 2.2 )	3 ( 6.7 )	4 ( 8.9 )
20 - 29	3 ( 4.7 )	5 ( 11.1 )	8 ( 17.8 )
30 - 39	2 ( 4.4 )	7 ( 15.6 )	9 ( 20.0 )
40 - 49	10 ( 22.2 )	1 ( 2.2 )	11 ( 24.4 )
50 - 59	10 ( 22.2 )	3 ( 6.7 )	13 ( 28.9 )
60 -	0 ( 0.0 )	0 ( 0.0 )	0 ( 0.0 )
Total	26 ( 57.8 )	19 ( 42.2 )	45 ( 100.0 )

Table 3. Occupation

Occupation	No ( % )
Student	2 ( 4.4 )
Salary man	7 ( 15.6 )
Farmer	28 ( 62.2 )
Laborer	3 ( 6.7 )
Merchant	2 ( 4.4 )
Unemployed	3 ( 6.7 )
Total	45 ( 100 )

상에서 자살을 기도하였다.

#### 4) 自 殺 企 圖의 事 前 意 思 表 示 및 自 殺 企 圖 過 去 歷

자 살 기 도의 자 전 의 사 표 시 를 한 사 람 이 전 체 적 으 로 6 名 ( 13.3% ) 이 었 으 며, 남 자 가 5 名, 여 자 가 1 名 이 었 다.

자살기도의 과거력을 가진 사람은 5명 ( 11.1 %)이었으며, 남자가 4명, 여자가 1명이었다. 과거력을 가진 남자기도자의 경우, 과거기도 횟수가 각각 1회였으며, 여자 1명은 2회의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다.

5) 自殺企圖者 發見時間

자살 기도후 발견시간은 즉시 발견된 경우가 24명 (53.3%)이었으며 1시간內에 발견된 경우는 11명 (24.4%), 1시간이상 지난 후 발견된 경우는 10명 (22.2%)이었다 ( Table 4 ).

6) 藥物種類와 飲毒量

약물종류는 農藥이 39명 (86.7%)으로 가장 많았고, 抗精神性 藥物이 3명 (6.7%) 취약이 3명 (6.7%)이었다.

음독량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기도자 대부분에서 소량 (50cc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7) 入院期間 및 後癒症

입원기간은 1일이 25명 (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2일이 9명 (20%), 7일이 5명 (11.1%)

Table 4. Period between suicidal attempt & discovery

Period	Sex		Total (%)
	Male (%)	Female (%)	
Immediately	16 (35.6)	8 (17.8)	24 (53.3)
Less than one hour	8 (17.8)	3 (6.7)	11 (24.4)
More than one hour	2 (4.4)	8 (17.8)	10 (22.2)
Total	26 (57.8)	19 (42.2)	45 (100.0)

Table 5. Hospitalization period

Period ( day )	Sex		Total (%)
	Male (%)	Female (%)	
1	15 (33.3)	10 (22.2)	25 ( 55.6 )
2	4 ( 8.9 )	5 (11.1)	9 ( 20.0 )
3	2 ( 4.4 )	2 ( 4.4 )	4 ( 8.9 )
4	1 ( 2.2 )	0 ( 0.0 )	1 ( 2.2 )
5	1 ( 2.2 )	0 ( 0.0 )	1 ( 2.2 )
6	0 ( 0.0 )	0 ( 0.0 )	0 ( 0.0 )
7	3 ( 6.7 )	2 ( 4.4 )	5 ( 11.1 )
Total	26 (57.8)	19 (42.2)	45 (100.0)

%)의 순으로 나타났다 ( Table 5 ).

자살 기도자의 42.2% (19명)가 후유증을 호소하였으며, 31.1% (14명)는 가벼운 위장장애의 증상이었으며, 11.1% ( 5명 )는 기타 신체증상이었다.

Table 6. Precipitating factors to attempt suicide by sex

Factor	Sex		Total (%)
	Male (%)	Female (%)	
Family trouble	13 (28.9)	11 (24.4)	24 ( 57.8 )
Financial poverty	7 (15.6)	4 ( 8.9 )	11 ( 24.4 )
Love affair	2 ( 4.4 )	1 ( 2.2 )	3 ( 6.7 )
Chronic illness	2 ( 4.4 )	1 ( 2.2 )	3 ( 6.7 )
Interpersonal relationship	1 ( 2.2 )	0 ( 0.0 )	1 ( 2.2 )
Others	1 ( 2.2 )	2 ( 4.4 )	3 ( 6.7 )
Total	26 (57.8)	19 (42.2)	45 (100.0)

Table 7. Psychodynamic motivation

Motivation	Sex		Total (%)
	Male (%)	Female (%)	
Impulsive hostility	7 (15.6)	9 (20.0)	16 (35.6)
Abandonment	8 (17.8)	7 (15.6)	15 (33.3)
Manipulation & attention seeking	2 ( 4.4 )	2 ( 4.4 )	4 ( 8.9 )
Guilt feeling	5 (11.1)	0 ( 0.0 )	5 (11.1)
Escaping from suffering	3 ( 6.7 )	0 ( 0.0 )	3 ( 6.7 )
Others	1 ( 2.2 )	1 ( 2.2 )	2 ( 4.4 )
Total	26 (57.8)	19 (42.2)	45 (100.0)

Table 8. The present attitude toward suicide

Attitude	Sex		Total (%)
	Male (%)	Female (%)	
Will never do it again	18 (40.0)	11 (24.4)	29 ( 64.4 )
Still have the desire occasionally	1 ( 2.2 )	3 ( 6.7 )	4 ( 8.9 )
Don't know	6 (13.3)	4 ( 8.9 )	10 ( 22.2 )
No comment	1 ( 2.2 )	1 ( 2.2 )	2 ( 4.4 )
Total	26 (57.8)	19 (42.2)	45 (100.0)

8) 自殺의 誘發要因

자살의 유발요인은 가정불화가 24명 (57.8%)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제적 빈곤이었다 (Table 6).

가정불화의 원인으로서는 부부싸움이 11명,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가 11명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중 5명은 경제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9) 自殺企圖의 動機

精神力動學的 動機에서 화가 나서 먹었다는 경우가 16명 (35.6%), 해결될 길이 없어서自暴自

Table 9. Period between suicidal attempt & MMPI test

Month	No (%)
0 - 6	5 ( 11.1)
7 - 12	12 ( 26.7)
13 - 18	9 ( 20.0)
19 - 24	11 ( 24.4)
25 - 30	7 ( 15.6)
31 - 36	1 ( 2.2)
Total	45 (100.0)

Table 10. MMPI ( T-Score )

Scale	Male ( N=26 ) M±SD	Female ( N=19 ) M±SD	Significance
Lie	48.96 ± 5.84	48.84 ± 11.55	* NS
F ( validity )	67.19 ± 15.49	59.95 ± 16.16	NS
K ( correction )	48.38 ± 8.09	48.26 ± 9.89	NS
Hypochondriasis	55.46 ± 12.78	55.74 ± 9.97	NS
Depression	54.04 ± 8.67	53.47 ± 10.41	NS
Hysteria	54.77 ± 11.4	55.16 ± 10.09	NS
Psychopathic deviate	51.27 ± 11.24	54.05 ± 9.50	NS
Masculinity - Femininity	43.54 ± 10.07	50.37 ± 9.45	P < 0.05
Paranoia	51.50 ± 14.03	56.16 ± 12.49	NS
Psychasthenia	52.04 ± 11.43	52.9 ± 10.04	NS
Schizophrenia	54.19 ± 16.39	57.21 ± 12.48	NS
Hypomania	49.81 ± 8.65	50.68 ± 10.89	NS
Social introversion	55.69 ± 9.43	52.37 ± 10.22	NS

\* NS : Non significant ( P > 0.1 ).

棄로 인한 경우가 15명 (33.3%)의 순으로 많았다 (Table 7).

10) 自殺企圖當時의 心理的狀態

자살기도당시의 심정에 대해서 「정말 죽고 싶었다」가 17명 (37.8%)이었고, 「사실 그럴생각이 없었다」가 13명 (28.9%), 「모르겠다」가 13명, 무응답이 2명이었다.

11) 自殺에 對한 現在의 態度

「절대 다시는 시도하지 않겠다」가 29명 (64.4%)으로 가장 많았고 「모르겠다」가 10명 (22.2%), 「때때로 부득이 할 수도 있다」가 4명 (8.9%), 무응답이 2명이었다 (Table 8).

12) 自殺企圖時부터 MMPI 試行時까지의 期間

1年內가 17명, 2年째가 20명, 3年째가 8명이었다 (Table 9).

13) 多面的 人性檢査 結果

Table 10에서 보듯이 남녀의 각 임상척도가 정상범위이며 남녀간의 비교에서도 Mf (Masculinity-Femininity) 척도에서만 유의한 차이 (P < 0.05)가 있을 뿐이었다 (Table 10).

자살에 대한 현재의 태도에 대해 「절대 자살하지 않겠다」群을 Group I으로 하고, 「때때로 부

**Table 11. MMPI( T-score ) of female**

Scale	**Group I ( N=11 ) M±SD	***Group II ( N=7 ) M±SD	Significance
Lie	48.64 ± 13.29	48.86 ± 9.14	* NS
F ( validity )	57.00 ± 17.85	66.00 ± 11.99	NS
K ( correction )	46.45 ± 11.42	51.00 ± 6.93	NS
Hypochondriasis	52.00 ± 6.92	60.29 ± 11.82	P=0.097
Depression	51.19 ± 6.25	55.43 ± 14.21	NS
Hysteria	52.27 ± 7.97	58.57 ± 9.5	NS
Psychopathic deviate	49.82 ± 8.7	60.00 ± 7.69	P<0.05
Masculinity - Femininity	50.28 ± 10.38	49.86 ± 8.53	NS
Paranoia	52.45 ± 10.74	61.14 ± 13.81	NS
Psychasthenia	51.82 ± 9.95	53.00 ± 9.93	NS
Schizophrenia	52.18 ± 9.31	63.43 ± 13.71	P=0.073
Hypomania	51.09 ± 7.22	49.86 ± 15.45	NS
Social introversion	48.00 ± 7.42	57.86 ± 11.12	P=0.05
Anxiety index	51.20 ± 18.16	47.61 ± 14.88	NS
Internalization ratio	1.02 ± 0.12	1.02 ± 0.22	NS

\* NS: Non Significant ( P > 0.1 )

\*\* Group I : ( Will not do it again )

\*\*\* Group II : ( Don't know and still have desire occasionally ).

**Table 12. MMPI ( T-score ) of male**

Scale	**Group I ( N=18 ) M±SD	***Group II ( N=7 ) M±SD	Significance
Lie	49.06 ± 5.93	47.86 ± 5.46	* NS
F ( validity )	56.94 ± 16.69	59.29 ± 12.49	NS
K ( correction )	49.44 ± 7.32	43.43 ± 6.57	NS
Hypochondriasis	54.44 ± 12.32	59.43 ± 13.62	NS
Depression	52.44 ± 7.43	59.71 ± 9.00	P=0.062
Hysteria	55.00 ± 10.48	56.86 ± 12.05	NS
Psychopathic deviate	47.67 ± 9.06	61.00 ± 10.29	P < 0.01
Masculinity - Femininity	43.22 ± 10.56	46.43 ± 7.15	NS
Paranoia	50.19 ± 14.33	57.43 ± 9.60	NS
Psychasthenia	50.33 ± 11.56	57.71 ± 9.53	NS
Schizophrenia	52.44 ± 17.54	59.86 ± 12.51	NS
Hypomania	48.28 ± 8.80	54.57 ± 6.74	NS
Social introversion	56.33 ± 9.96	55.43 ± 7.80	NS
Anxiety index	47.81 ± 13.78	58.96 ± 13.52	P=0.084
Internalization ratio	1.05 ± 0.14	1.03 ± 0.09	NS

\* NS : Non Significant ( P > 0.1 )

\*\* Group I : ( Will not do it again )

\*\*\* Group II : ( Don't know and still have desire occasionally ).

Table 13. MMPI ( T-score ) of both sexes

Scale	**Group I ( N=29 ) M±SD	***Group II ( N= 14 ) M±SD	Significance
Lie	48.90± 9.60	48.36± 7.83	* NS
F ( validity )	56.97±17.44	62.64±13.13	NS
K ( correction )	48.31± 9.37	47.21± 8.03	NS
Hypochondriasis	53.52±10.86	59.86± 13.24	NS
Depression	51.97± 7.16	57.57± 12.54	P=0.069
Hysteria	53.59± 9.95	57.71±11.30	NS
Psychopathic deviate	48.48± 9.46	60.50± 9.44	P=0.000
Masculinity -Feminity	46.07±11.30	48.14± 8.36	NS
Paranoia	51.21±13.36	59.29±12.90	P=0.065
Psychasthenia	50.90±11.20	55.38±10.39	NS
Schizophrenia	52.34±15.23	61.64±13.74	P=0.060
Hypomania	49.34± 8.49	52.21± 12.60	NS
Social introversion	53.17±10.11	56.24±10.05	NS
Anxiety index	49.09±15.36	53.29±14.88	NS
Internalization ratio	1.03± 0.13	1.02± 0.16	NS

\* NS : Non Significant ( P > 0.1 )

\*\* Group I : ( Will not do it again )

\*\*\* Group II : ( Don't know and still have desire occasionally ).

특이 할 수도 있다」群과 「모르겠다」群을 합친 對照群을 Group II로 하여 남녀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남녀별로 다시 비교하였다. 여기서 無應答한 2명은 제외시켰다.

여자에서 Group I, Group II의 비교에서는 Psychopathic deviate척도와 Social introversion척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Group II에서 높았으며 ( P < 0.05 ), Schizophrenia척도와 Hypochondriasis척도의 경우도 Group II에서 더 높았다 ( P < 0.1 ) ( Table 11 ).

남자의 경우 Group I, Group II의 비교에서는 Psychopathic deviate척도 ( P < 0.01 )와 Depression척도 ( P = 0.062 )의 경우 Group II에서 더 높았다 ( P < 0.1 ) ( Table 12 ).

남녀 전체적으로 Group I, Group II의 비교에서는 Psychopathic deviate척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Group II에서 높았으며 ( P = 0.000 ) Schizophrenia척도 ( P = 0.060 ), Paranoia척도 ( P = 0.065 ), Depression척도 ( P = 0.069 )에서는 유의수준을 10 %로 할 때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 Table 13 ).

## 考 察

Morselli<sup>12)</sup>, Durkheim<sup>13)</sup>등은 사회학적 견지에서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여러가지 환경요소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누가 자살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살은 환경적 영향에 따르는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사회에는 인간을 자살의 길로 몰아넣는 일정한 성향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살기도의 역학적 연구에서는 개인의 性格以外에 환경요소가 또한 중요한 것이다. 이에 著者は 자살기도후 회복된 例들의 人的特性과 환경요인들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자살기도자의 연령분포에서 20代가 29% ( 27명 )로 최고치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순이 40代 ( 22.7% ), 50代는 19.4% ( 18명 )이었다. 강화도지역에서 77년부터 79년까지 집계한 자살자의 보고<sup>1)</sup>에서는 남

녀 전체적으로 30代가 최고치를 보이고, 남자에서는 30代에 최고치를, 여자에서는 20代가 최고치를 보이며, 일부 강원지역에 있어서의 자살기도자의 보고<sup>2)</sup>에서는 20代가 54.5%(54명)로 가장 많고 40代가 15.1%(15명)로 그 다음의 순위를 보인 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어느정도 일치하였으나 각 지역의 연령별 인구분포가 相異할 것이므로 정밀한 客觀的 비교는 곤란 하였다.

농촌지역의 자살기도자에서 20代와 30代가 많다는 결과는 도시지역의 자살기도자에 대한 보고<sup>5)6)</sup>에서 20代가 가장 많다는 결과와 비슷했다.

93명 中 9명만이 가능했던 45명의 분포에서는 40代, 50代가 많았는데 이는 면담시기가 자살기도시기로부터 상당시간후에 이루어졌고, 이 기간 中 젊은 연령층의 求職과 住所變更등을 理由로한 대도시로의 移動때문에 면담대상에서 젊은 연령층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다.

남녀 비율에 있어서는 남자가 강화지역에서 2.3倍, 강원지역이 1.2倍로 높았으며 본 조사의 경우도 1.4倍로 남자가 높았다. 도시지역에서는 자살기도자에 대한 보고<sup>5)6)</sup>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남자가 더 많은 경향을 볼 수 있다.

종교별로는 無敎가 55.6%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불교였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대부분 사람들이 무교 아니면 불교신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계절은 여름이 많았다. 이는 여름에 農藥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農藥入手의 容易性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음독장소는 대부분이 自宅이었다.

自殺意圖를 말로써 事前에 表示한 경우가 13.3%(6명)이었다. 이 결과는 강화지역의 74%와 강원지역의 39.7%에 비해 매우 낮았다. 자살기도 후 發見된 時間을 보면 即時 發見된 경우가 53.3%이고, 한 時間內에 發見된 경우가 24.4%, 한 時間以上 지난 後 發見된 경우가 22%였다. 即時 發見된 경우는 주로 집안식구들에 의해 發見되었다. 자살기도의 過去歷을 가진 자는 11.1%(5명)이며, 강화지역의 15.8%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음독후 입원기간은 1일이 55.6%로 가장 많았고 2일이 20%, 7일이 11%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기도자의 대부분이 소량을 음독하였으며 즉시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後癒症을 호소한 경우가 42.2%였는데 그 中 31%가 가벼운 위장장애였다. 가벼운 後癒症, 少量의 음독량, 짧은 입원기간, 即時 발견되었다는 결과를 볼 때 자살기도자의 대부분이 강한 자살동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죽음에 대해 생각해 왔다기 보다는 偶發的이고 衝動的으로 자살을 企圖했다고 볼 수 있다.

자살의 誘發要因 中 57.8%가 가정불화, 24.4%가 경제적 빈곤을 보여주나 이러한 要因들은 單一하게 작용하기 보다는 複合的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가정불화와 경제적 문제가 함께 要因이 된 경우가 많았다. 자살의 精神力動學的 動機에서 敵愾心이 35.6%, 自暴自棄가 33.3%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自殺企圖當時의 心理的 狀態에 대해서는 「정말 죽고 싶었다」가 37.8%로 김<sup>3)</sup> 등의 보고에서의 61%에 비하면 매우 낮았다. 자살에 대한 態度에서 「절대 다시는 자살을 하지 않겠다」가 64.4%이었으며, 김<sup>3)</sup> 등의 보고에서의 33%에 비하면 높았으나, 일본에서의 75%와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sup>3)</sup>.

본 연구에서 「절대 다시는 자살하지 않겠다」가 64.4%인 결과와 「정말 죽고 싶었다」를 제외한 나머지가 62.2%인 결과를 聯關시켜 볼 때 자살기도의 深刻度는 낮다고 볼 수 있다.

Robin<sup>14)</sup>은 「자살이란 그 時代에 있어서의 諸般社會的 與件에 대한 한 개인의 性格반응」이라고 하였다. Ringel<sup>15)</sup>은 자살동기를 주의깊게 관찰하면서 직접동기만을 중요시 할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전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신경증적인 태도가 더욱 문제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살행위는 自殺企圖前의 外的 狀況에 대한 개인의 성격에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자살행위는 대부분 사랑의 喪失後 생기는 敵愾心, 憤怒, 攻撃性이 외부로 향하지 못하고 내부로 향하면서 생기며 그러한 공격성, 적개심때문에 생기는 罪意

識에 대한 自責 (Self-Punishment) 現象의 결과로 나타난다. 일단 자살행위를 하고나면 淨化 效果 (Catharsis) 로써 공격성이 감소되면서 罪意識 또한 감소된다<sup>3)</sup>. 자살기도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한 MMPI 에 의한 결과를 보면 남녀 전체적으로 모두 각 임상척도가 정상 범위에 들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사이의 유의한 차가 없었다.

「앞으로 자살을 절대 하지 않겠다」群과 그렇지 않는 群을 비교해 볼 때 Psychopathic deviate (精神病質-一般社會的 異常性格) 尺度가 통계학적으로 의의가 컸다. Giberstadt-Duker<sup>16)</sup>는 MMPI 에서 Psychopathic deviate 척도가 높은 성격의 특색은 攻撃의 성격, 受動的-攻撃의 성격, 性格特性 障礙이며 主要特色은 「無責任, 未成熟, 要求的, 自己中心的, 衝動的, 幼兒的, 부주의, 침착하지 못함, 情緒的으로 불안정함, 母親의 응석받이, 환자는 妻로부터 救助的이고 어머니같은 태도를 끌어내기 때문에 離婚은 드물지만, 심한 결혼갈등이 있음. 倒錯된 性行動과 寬演을 포함하는 性的不正適應, 낮은 挫折忍耐性 때문에 긴장되고 침울하고 우울하게 되며 가장 흔한 입원의 원인은 자살의 企圖, 妻에 대한 공격적 폭발, 알코올中毒」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살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지 않은 群에서의 Psychopathic deviate 척도가 높은것은 自殺企圖後에도 해결되지 않은 불안요인으로 인한 남아있는 공격성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구조상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리고 Depression, Schizophrenia, Paranoia 척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Giberstadt-Duker<sup>16)</sup>는 MMPI 8-2-4型 (Schizophrenia-Depression-Psychopathic deviate) 의 성격을 偏執症의 성격이라고 진단했으며 성격의 특색은「극단적인 性急, 敵對 및 緊張, 獨身, 만일 결혼했다면 심한 결혼 부적응, 性的 精神病理가 주요문제, 口唇的, 依存性, 심한 알코올中毒, 직업에 대한 의욕과 책임이 없음, 罪責에 압도당함, 皮相的인 實行」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Psychopathic deviate, Pa-

ranoida, Schizophrenia, Depression 척도가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살을 절대 하지 않겠다」群보다 「때때로 부득이 할 수도 있다」群과 「모르겠다」群의 성격이 공격적이고 편집증적인 성격의 경향을 보다 더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 結 論

1981년 2월부터 1984년 2월까지 3年間 경상북도 청도군과 선산군에서 藥物中毒를 利用한 自殺企圖者中 企圖後 실패한 93명에서 면담이 가능한 45명을 對象으로 社會精神醫學的 調查 및 多面의 人性檢査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自殺企圖者 93명의 性比는 138.5로서 남자가 많았으며 年齡分布는 20代에서 27명 (29%) 이었고 그 다음이 40代로 22명 (23.7%)의 순이었다. 그러나 면담한 45명에서의 性比는 136.8 이었고, 年齡分布는 50代에서 가장 많았다.

2) 學歷은 國卒이 25명 (55.6%)으로 가장 많았고 中卒이 10명 (22.2%), 高卒이 6명 (13.3%) 이었다.

3) 職業은 農業이 28명 (62.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會社員으로 7명 (15.6%) 이었다.

4) 季節別로는 여름에 제일 많았고 他季節에서는 서로 비슷하였다.

5) 自殺企圖後 發見時間은 即時 發見된 경우가 24명 (53.3%)으로 가장 많았고, 한 時間以內에 發見된 경우는 11명 (24.4%)으로 그 다음순이었다.

6) 藥物種類는 農藥이 가장 많았고 飲毒場所는 自宅, 飲毒量은 少量 (50cc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7) 入院期間은 1日이 25명 (55.6%)으로 가장 많았고 2日이 9명 (20%)으로 그 다음이었다.

8) 自殺誘發要因은 家庭不和가 24명 (57.8%), 經濟的 貧困이 11명 (24.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9) 자살의 精神力動學的 動機는 敵愾心이 16



명 (35.6%), 自暴自棄가 15명 (33.3%) 이었다.

10) 自殺企圖當時의 心情에 대해서는 「정말 죽고 싶었다」가 17명 (37.8%) 을 차지했다.

11) 자살에 대한 현재의 態度는 「절대 다시는 자살하지 않겠다」가 29명 (64.4%) 이었다.

12) 多面的 人性檢査의 結果는 「절대 다시는 자살하지 않겠다」群 보다 「때때로 부득이 할 수도 있다」와 「모르겠다」群에서 Psychopathic deviate, Paranoia, Depression, Schizophrenia 척도가 높게 나타났다.

### 參 考 文 獻

- 1) 유순형 · 김일순 : 한국 도서지방 (강화군) 의 자살에 대한 역학 및 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0(3) : 266-273, 1981.
- 2) 이성훈 · 이만홍 : 일부 강원지역에 있어서의 자살기도에 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1(3) : 462-470, 1982.
- 3) 김종은 · 김중술 : 자살기도자의 예후조사, 가톨릭대학의학부논문집, 제 9집 : 63-69, 1965.
- 4) 石在鎬 · 金慶植 · 孫鳳基 · 咸雄 · 奇栢錫 : 自殺企圖者에 關한 研究, 神經精神醫學, 19(4) : 288-293, 1980
- 5) 석재호 · 김경식 · 기백석 · 박유문 : 자살기도자들에 관한 임상적 특성, 신경정신의학, 21(1) : 25-32, 1982.
- 6) 유동수 : 자살기도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7(4) : 352-363, 1978.
- 7) 정범모 · 이정균 · 진위교 : MMPI (다면적 인성검사) 검사법 요강, 코리안테스팅센터, 1967.
- 8) 이정균 · 정범모 · 진위교 : 다면적 인성검사, 코리안테스팅센터, 1967.
- 9) 金容佑 : 자살기도에 대한 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19(3) : 213-219, 1980.
- 10) 김수일 · 조용남 : 약물중독을 이용한 자살기도 군에 대한 MMPI에 의한 성격분석 및 사회환경적 고찰, 적십자병원지, 5(2) : 49-54, 1978.
- 11) Weiss, J.A.: Suicide: In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2nd ed) Vol. III, Edited by Arieti, S.N.Y.; Basic Book, 1974.
- 12) Morselli, E.: Le Suicide, 1879. Cited from the Reference No.18
- 13) Durkheim, E.: Le Suicide, Etuted de Sociologie, Neuvelle, 1931. Cited from the Reference No 18

- 14) Robins, E.: Evaluation of Suicide attempts as guide to therapy. J.A.M.A. Vol. 155, June 5, 1951 Cited from the Reference No 23.
- 15) Ringel, E.: Der Selbstmrod, 1953. Cited from the Reference No 21.
- 16) Giberstadt-Duker: A handbook for clinical and actuarial MMPI interpretation, 1965.
- 17) Lachar, David: The MMPI: clinical assessment and automated interpretation, 1973.
- 18) 한상영 · 김행숙 · 박태수 : 자살재기도자에 대한 정신의학적연구, 신경정신의학, 10(2) : 1-7, 1971.
- 19) 韓相燁 · 金榮煥 · 房膝規 : 한국인 자살기도의 潛在性評價, 신경정신의학, 10(1) : 27-31, 1971.
- 20) Litman, R.E. et al: Suicide conclusion: A psychiatric service to social agencies, APAJ, Vol. 122, No. 12, June, 1966. Cited from the Reference No. 19.
- 21) 이영호 · 윤호영 : 자살기도자의 사회환경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8(8) : 43-50, 1969.
- 22) World Health Organization: Prevention of Suicide. Public Health Paper, No 35, Geneva, W.H.O.
- 23) 김종은 : 한국인의 자살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중앙의학, 5(4) : 367-420, 1963.

### = ABSTRACT =

#### The Socio-Psychiatric Study on Attempted Suicides

Hae-Yong Song and Young-Tae Yum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Institute for Environmental Health,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Dong-Kyun Shin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The socio-psychiatric study and personality analysis by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on attempted suicides with drug intoxication in Seonsan-Gun and Cheongdo

- Gun of Kyoungsang buk--Do was attempted to identify overall picture of attempted suicides and to detect some characteristics of personality.

The total of 93 suicide attempted cases which were brought to the local clinics for the past 3 years from February, 1981 to February, 1984 were sampled among them.

The socio-psychiatric study and MMPI were performed with 45 attempters possible to be interviewed. The personalities of a group which answered "Still have the desire occasionally" or "Don't know" about the present attitude toward suicide was compared with those of the other group who answered "Will not do it agai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sex ratio of the total attempters ( 93 cases ) were 138.5. The highest rate by age group was found in the 3rd decade to be 27 cases. On the other hand, the sex ratio of interviewed cases were 136.8 and the highest rate was found in the age group of 50-59.

2) For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majority other than sex, 55.7% of cases were graduated primary school, and 62.2% were engaged in agriculture.

3) Except the fact that more of the attempted suicides happened during summer, there were

no seasonal variation among other seasons.

4) The places selected for the attempted suicides were the houses in majority of cases ( 98% ). Most of cases ( 53.3% ) were found immediately after the attempt and 24.4% within one hour. For the poison taken, 86.7 % took a sort of herbicides or insecticides, 55.6% were admitted to local clinics for only one day and 20% for two days.

5) The most common precipitating factors of the attempted suicides were family trouble and financial poverty.

6) The psychodynamic motives of the attempters were impulsive hostility ( 35.6 % ), abandonment ( 33.3 % ), guilt feeling ( 11.1 % ), manipulation and attention seeking ( 8.9 % ) and others.

7) In regard to their present attitude toward suicide, 29 cases ( 64.4 % ) expressed that they would never do such an act again, 37.8% of cases expressed that they really wanted to die at the time when they attempted.

8) The Psychopathic - deviate, Paranoia, Depression, Schizophrenia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ttempters group who answered "Don't know" or "Possibly" for the question of "Will you attempt suicide again?" than the group who answered "will not do it again".